

2016 년을 맞이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6 년 12 월 16 일이 왔고 저는 남 가주 Oceanside 에 있는 프란치스칸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의 영속 양성을 위한 유급 휴가를 끝냈습니다. 강의들 중에는 프란치스칸 주제에 관한 Bill Short OFM 의 강의와 성 프란시스와 프란시스 교황 ("복음의 기쁨" 과 "찬미 받으소서" 두 회칙)의 문서를 비교하는 Wayne Hellmann OFM Conv 의 강의를 있었습니다. 이 수사들은 (Regis Armstrong OFM Cap 과 함께) 아시아의 성 프란시스-성인/ 창시자/예언자라고 제목을 붙인 3 권의 책을 편집했습니다.

남가주에서 여러 재속 프란치스칸을 만났는데, 제가 거기 머무를 때 받은 축복으로 생각됩니다. 친절하게 맞이하는 한 한국 형제회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Vinal Van Benthem OFS 와 같이 쓴 "사랑을 위한 기다림"이란 제목의 한 책을 끝냈습니다. "Q" (5 년에 한번 열리는 국가 형제회 주관의 프란치스칸 가족모임) 대회 때 에는 이 책을 구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Q" 대회에서 삼위일체와 그의 프란치스칸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형제회가 깊은 수준의 형제회 헌신을 촉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TAU-USA 의 이번 호에서 "Q" 대회에서 대화에 참여하도록 돕는 아이디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실 점검

재속회원들은 그들의 삶에서 프란치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녀의 비전을 본뜬다. 이러한 성장이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즉 국가 형제회의 양성팀의 작업이 헌신적 봉사의 한 예입니다. 국가 형제회 위원회와 전국의 지도자의 통찰력이 그들의 워크숍과 TAU-USA 에 실린 기사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흡수 동화 하는 프란치스칸들은 현명해질 뿐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그들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로 알려진 구태의연한 길을 따라간다면 형제회에 있어서는 슬픈 날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형제회에 속한 회원들에게는 형제회 생활이 별로 활기차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제회가 이런

형제회 중의 하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평의회들이여, 1978 재속 프란치스코 회칙에 대한 회원들의 헌신과 이행을 평가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회원들의 열성을 추축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와 Q 대회에서 제가 나눌 아이디어는 대화를 촉진하고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생활양식에 대한 헌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형제회는 그 자신의 회를 평가합니다. 무언가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회원들은 바꾸기 위한 방법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도전은 개인 및 형제회의 *전환(강렬한 내적인 변화)*을 뒷받침합니다. 재속프란치스코 회칙은 **매일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회칙 제 7 조 참조). 정기 모임에서 형제회원들은 그들의 재속 프란치스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들은 우리들 개인적인 프란치스코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우리를 돕는 방법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프란치스코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에서 1978 생활 회칙의 비전을 나타내도록 촉구합니다. 삼위일체는 사람들을 위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메시지 (복음적 생활)를 생활화 하라고 합니다. 실패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공 또한 쉽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사랑, 집요함, 기도, 전환, 배움 과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이 여정에

있어서 프란치스코인을 도와주는 일반적인 도구입니다.

매일의 삶으로 부터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프란치스코인으로 하여금 형제회, 배우자, 가족, 단체, 도시, 지역 교회, 정치가, 적과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물을 가져가도록 돕습니다. 슈퍼마켓, 쇼핑물, 식당, 자동차 여행, 사람들 모임, 부엌, 학교, 지역 교회, 병상, 집에서와 우리가 가는 어디에서나 이 일이 일어납니다.

*평화 - 정의 - 전환 - 자비 - 대화 - 용서- 사랑 - 이해 - 관계 - 연민 - 연대감 - 기쁨을 가져옴*은 프란치스코인에 기대되는 자질입니다. 이것들은 매일의 삶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형제회 모임은 나눔의 생활-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신심행위는 프란치스코 모임의 건전한 일부가 될 수 있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됩니다. 신심행위를 많이 하고도 개인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는 평형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심을 추가하는 것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보다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심이 전환과 프란치스코 영성의 성장을 촉진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일치로 이끄는 영적 힘입니다; 과연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어둠 속에 있고" (요한 1 서 2:11),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요한 1 서 3:14) 그리고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 1 서 4:8). 베네딕 16 세는 "우리 이웃을 모른 채하는 것은 하느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결국 "어두워진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며 계속 생활하고 일하도록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고 말합니다. (베네딕 16 세). 우리가 다른 이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복지를 추구하는 영성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슴은 주님의 가장 크고 가장 풍성한 선물에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다른 이를 만날 때 마다 하느님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떠 "다른 이"를 인정할 때 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빛과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의 향상을 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 헌신적인 선교사는 넘쳐흐려 다른 이를 기운 나게 하는 샘이 되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 우리가 달아나고, 숨고, 나누기를 거부하고, 살기를 중지하고 우리 자신의 안락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바로 서서하게 죽는 행위입니다.

Evangelii Gaudium - 복음의 기쁨

프란시스 교황 -제 272 항

프란시스 교황의 말씀은 서약한 프란치스칸이 **되라고** 도전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느님께서서는 OFS 회칙을 준수하면서 복음적 생활을 하라고 초대합니다. 형제회 모임은 서로 간에 통찰과 경험을 나누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형제자매와 관계를 맺는 한 방법입니다. 서약할 때 우리는 우리가 서약한 것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월례회는 서로 배우는 한 장소입니다. 프란치스칸이 **되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회원과 단위, 지구, 국가 그리고 국제 형제회 평의회 노력의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삼위일체의 부르심에 응답합니까?

초청 연사와의 프로그램은 좋습니다. 그러나 강의 주제가 어떻게 프란치스칸 삶과에 적용되는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연사와 또 우리들 사이에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주의 깊게 경청함은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고, 대화는 주제가 우리 마음에 어떠한 감동을 주는가를 보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소극성은 전환을 촉진하거나 관계를 깊게 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형제자매"로서 회원은 자기 성소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힘에 자극받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변화**에 의하여 자신의생각과 행동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복음은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이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OFS 회칙 - 제 7 조

대화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가 나누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어려움이 우리의 경험과 비슷할 때 우리의 어려움이 관리하기가 쉬워 보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대화를 통한 나눔은 우리가 생각을 나눌 때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OFFS 회칙을 생활하면서 겪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서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수동적이거나 그저 손뼉을 치거나 어떤 이가 나누는 좋은 생각을 조용히 숙고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에 별로 시간을 쓰지 않으면, 많은 좋은 아이디어는 쓸모 없게 될 것입니다.

형제회 모임에 쓰인 시간들을 확인하십시오. 모임은 의미 있는 성장을 지속시킵니다. 한 달에 서너 시간은 한 달에 36 내지 48 시간이고 1년에 약 2일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같이 잘 이용해야 합니다. 평의회와 회원은 아마 지역과 지구 형제회 모임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모임들, '즐거운' 시간, 서약, 축제, 수련회, 특별한 초기 및 영속적 양성 회의를 지지해야 합니다. 양성 회의는 튼실한 양성을

받지 못한 회원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모임들은 지역 교회 프로그램, 거동이 불편하신 이들을 방문하는 계획을 지원 하거나 잘 계획된 방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노력도 형제회 생활에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일치를 이루게 합니다. 정치, 폭력, 병, 공포가 우리 삶의 방식에 도전할 때 우리는 대화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와의 일치처럼 전환은 프란치스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선교 명령은 신앙의 성장을 요청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20). 그러므로 첫 선포 또한 영속적 양성과 성숙을 요구합니다. 복음 전도는 각개인과 그/그녀의 삶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진지하게 받아드리게 하는 성장 과정을 겨냥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 각자가 진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이런 성장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갈라 2:20)

성장하라는 이 요구를 오로지 교리공부를 많이 하라고 이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라는 요구는 주님의 사랑에 대응하는 길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Evangelii Gaudium- 복음의 기쁨

프란시스 교황 - 제 160-161 항